

#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서가 되자”

- 초보사서의 제41회 도서관주간 행사 체험기 -



김수연\*

‘도서관은 당신께 귀한 선물이고 싶습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실시한 이번 도서관주간의 행사는 초보사서로서 처음 내가 맡은 일이었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올해 1월 신규 발령을 받고 아동자료실을 맡게 된 첫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설레임과 함께 잘해보겠다는 의욕에 넘쳐서 흔히들 ‘봉화’ 하면 벽지니 오지니 하던 말들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도서관에 처음 왔을 때 골목 안에 자리잡은 3층의 붉은 벽돌 건물은 아담하면서도 도서관 같지 않은 외관이라 더 정감이 갔다. 봉화도서관은 1991년 6월에 개관하여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 5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전형적인 농촌형 공공도서관이다.

처음에는 방학 때라 매일 아이들로 붐볐고 책상 위에 놓여진 책들과 서가에 엉망으로 꽂아놓은 책들을 정리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옹기종기 모여서 책 읽는 아이들의 어여쁜 모습은 처음 일하는 나에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도전 의식과 책임감의 대상이 되었다. 개학을 하고 아동실도 조용해질 무렵 도서관주간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도서관주간은 나에게 생소한 것이지만, 초보사서로서의 열의와 직업적인 포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이들을 위해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그 중 독서퍼즐, 어머니가 들려주는 동화교실, 어린이추천독서목록수첩, 책갈피 모아모아, 도서관 추억 만들기 등이 이번 아동실 행사로 실시되었다.

경험 없는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부담감이 많았지만, 초보사서의 열의로 보시고 나의 의견을 수용하고 격려해주신 관장님 덕분에 준비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호응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 경상북도립봉화공공도서관 사서, j5925@hanmail.net

특히 독서퍼즐이 아이들의 호응도가 가장 컸다. 나날이 아이들의 응모건수는 늘어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책을 읽으면서 함께 의논하며 퍼즐을 푸는 모습, 그리고 중학생 오빠들이 끙끙대며 문제를 풀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다. 독서퍼즐 추첨을 하는 날도 응모한 아이들이 많이 참가해서 자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끌벅적한 풍경을 연출했다. 독서 퍼즐이나 독서 퀴즈는 아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도를 이끌 수 있고 퍼즐 내용에 대한 공부도 될 수 있기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머니가 들려주는 동화교실은 우리 도서관의 동화구연강좌를 수강하셨던 어머니께서 맡아주셨는데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홍보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을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들이 꽤 있었다. 가끔씩 동화구연을 또 다시 들을 수 있는지 물어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뿌듯하면서도 지역적으로 이런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농어촌지역일수록 도서관은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보고 듣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추천도서목록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많이 하는 행사이다. 수첩으로 만들어서 오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월별, 상황별, 연령별로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상으로 하여 수작업으로 40매를 만들었다.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전문업체에 주문제작 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수작업으로 제작하였는데, 처음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중노동이었다. 비록 만드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도서목록수첩은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대히트였으며 도서목록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대출하는 모습은 앞으로의 다짐을 일깨워주었다.

책갈피 모아모아는 책을 많이 읽게 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이쉬움이 많이 남은 행사였다. 책 속에 넣어둔 책갈피와 책의 간단한 내용과 느낌을 적을 수 있는 독서록을 기록해보면 상품을 주는 행사였는데 아이들 대상이라서 부작용도 컸다. 책갈피만 찾아오고 독서록은 적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책갈피를 찾기 위해 서가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기도 했다.


도서관주간에 아동실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즉석카메라로 찍어주는 도서관 추억만들기 행사를 했다. 역시 아이들이라 재미있는 것에 반응이 좋았고 아이들을 차례로 찍어주는 동안 나 역시 즐거웠다. 찍은 사진은 도서관주간이 끝나고 한 주 동안 아동실에 전시하고 난 후 찾아가게 했다.

아동실의 행사 외에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은 도서관에서 실시했던 '알뜰바자회'와 '도서관교환전'이었다. 도서관에서 알뜰바자회를 한다는 것이 의외로 여겨졌지만 처음의 궁금증은 점점 즐거움으로 바뀌어져갔다. 헌 의류나 장난감, 우리 도서관의 평생교육강좌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손뜨개 모자와 지갑 등을 판매하였는데 한번도 도서관에 와보지 않았던 주민들도 많이 찾아와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다. 도서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만든 행사에서 거둔 수익금은 결식아동돕기 기금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전해졌다. 우리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다. 또한 헌 책을 새 책으로 교환

해 가는 도서교환전을 통해 책 읽기를 더욱 장려할 수 있으니 도서관의 본 목적에 충실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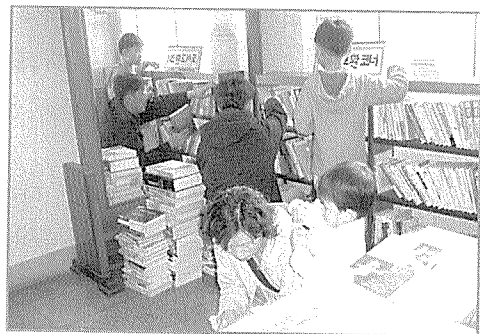
행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니 준비한 만큼 보람 있고, 처음이라 이쉬움도 있고, 앞으로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든다.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시도해보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성취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아동실 행사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는 과정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하던 시기에 있던 나에게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자극이 되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된 행사였다. 또한 이번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실무적인 방법에 미숙했던 나에게는 기초경험이 된 셈이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는 사람들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내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며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문화적인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어릴 적 독서 습관이 인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성과 창의성, 상상력 등을 얻을 수 있는 인류 최대의 유산이 '책'이라는 점에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책과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은 도서관 사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본다.

외국 동화 속, 파랑새를 찾아 떠났던 찌르찌르와 미찌르가 결국 자기 집의 새가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숨어있는 책이 우리 인생의 파랑새가 아닐까. 책과 다양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파랑새를 찾을 수 있도록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즐거운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행사가 도서관주간의 깜짝 선물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용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사고를 하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보람과 위상이라는 또 다른 선물이 되어 도서관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본다. 



〈알뜰 바자회〉



〈도서교환전〉